
우리 브랜드에 대해 말하고 싶은 점이 너무 많은데요.

자네 혹시 외우는 시 있나? 시를 줄줄 외우면 멋질 텐데, 내 기억력이 못 받쳐주네. 겨우 외우는 시가 한 편 있어. 고은 시인의 ‘그 꽃’, 석 줄짜리라 외워.

내려갈 때 보았네
올라갈 때 보지 못한
그 꽃

설명 안 해도 뜻을 알겠지? 세 줄밖에 안 되지만, 가슴에 스며들듯 와닿잖아.

시는 왜 감동을 주지?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응축하기에 더 큰 감동을 주는 것 아닐까. ‘산에 올라갈 때는 힘들어서 눈에 안 들어오지만...’ 하고 구차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세 줄로 담백하게 표현하니 더 큰 감동을 주는 거겠지.

이게 ‘응축의 힘’이야. 나열하기보다 응축을 하면 더 임팩트가 생겨.

내가 자네에게 꼭 읽어야 할 책들도 소개하지만, 영화도 많이 권할 거야. 마케터는 경험을 많이 해야 하는데, 간접경험으로 영화만 한 게 없거든. 이번에 추천할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<흐르는 강물처럼>이야.

영화의 배경은 자연이 아름다운 미국 북부 몬태나주의 산골 동네. 그곳에 그야말로 신실한 목사님이 부임해. 이 목사님에게 어린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아들은 장난꾸러기고, 큰아들은 아주 똑똑하지.